

결혼이주 베트남여성의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과 임파워먼트 관계 융합연구

문지현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onvergence Study on Marital intimacy, spousal support, sexual autonomy and empowerment on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in Korea

Ji Hyun Mo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 베트남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한국남성배우자와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ANOVA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부부친밀감은 3.17 ± 0.69 , 배우자지지 3.45 ± 0.94 , 성적자율성 3.70 ± 0.83 , 임파워먼트는 3.41 ± 0.57 이었고,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와 성적 자율성 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을 보였고($p < .001$), 임파워먼트는 배우자지지와 성적자율성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p < .005$).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 베트남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임파워먼트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marital intimacy, spousal support, sexual autonomy and empowerment of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119 Vietnamese women who migrated for marriage, and it took place from May to September, 2018.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arital intimacy 3.17 ± 0.69 , spousal support 3.45 ± 0.94 , sexual autonomy 3.70 ± 0.83 and varied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p = .011$), and empowerment varied according to economic level($p < .001$). There was a difference in intimacy and support depending on the marriage period. There is a very strong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p < .005$). Married immigrant women showed moderate marital intimacy, spousal support, high correlation with sexual autonomy and two variables, and empowerment correlated with sexual autonomy. Based on these findings, it seems to be necessary to find a way to increase the empowerment of Vietnamese women and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s.

Key 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marital intimacy, spousal support, sexual autonomy, empower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로 형성된 가정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에 따른 국제결혼 증가 추세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을 살펴보면, 전체 결혼 건수에서 2000년 3.5%였던 것이 2009년까지 10.8%로 급속히 증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Mokpo University Annual Academic Fund in 2017. (No.: 2017-0190)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Moon(moonjh86@mokpo.ac.kr)

Received February 28, 2019

Revised April 1, 2019

Accepted April 20,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가하였으며,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75.5%이다[1]. 여성들의 국적으로는 중국이 1위를 차지하다 최근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1]. 또한 2020년이 되면 결혼이주여성으로 형성된 가족의 비율이 전체 국민의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농촌 지역에서는 5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1].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는 물론 사회화와 관련된 부적응,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지원체계의 부족 등은 가족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2]. 또한 전국 결혼이민자들의 실태를 보고한 연구[3]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4],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문제는 건강 전문가들의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이와 관련된 삶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5].

현대의 부부 관계는 과거의 확대가족체계 안에서 형성된 가부장적 관계와는 달리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친밀감을 강조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부부 관계의 정서적 안정은 개인은 물론 가족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6].

부부의 관계를 반영하는 지표는 부부친밀감, 배우자 지지 등이 포함된다[7]. 부부간의 친밀감은 서로가 느끼는 상호관계의 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8]. 선행행연구의 결과 배우자의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친밀감도 높았고[7], 정서적 적응과 삶의 질이 높았으며, 지지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배우자였다[7,9].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0].

자율성이란 내적 또는 외적 환경에 대해 자신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말한다. 성적 자율성은 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으로[11], 성적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내·외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실현하므로 안전한 성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12].

임파워먼트란 자기통제,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와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적극적 참여 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는 자신이 변화되고, 대인관계 및 행위가 변화되기 위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능력 및 통제권이 강

화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13]. 최근 이러한 임파워먼트 개념을 도입한 프로그램들은 대상자들의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자신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4]. 임파워먼트의 증가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돕고, 새로운 환경과 과제에 대한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되고 있다[15].

그러므로 점차 늘어가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문제를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개선해 나가려는 다차원적인 시도는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듯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문제를 부부관계 안에서 여성의 자율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파악하여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를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주 베트남여성들을 대상으로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의 상태 및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표적모집단으로 하고,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M시, M군 및 D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기혼 여성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배우자와 거주하면서 20~60세 미만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Yoo[16]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Cohen의 검정력 분석방법에 따라 효과크기($d=0.15$), 검정력($1-\beta$

=0.95), 유의수준($\alpha=0.05$)를 고려하여 다변량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으로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표본의 크기는 111명이 산출되었고, 최종 분석된 자료는 119명 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은 Waring[17]의 Marital Intimacy Questionnaire를 Kim[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 간 의사소통, 애정의 표현, 상호존중, 성생활 만족, 여가활동, 결혼생활에 대한 안정감, 감정표현 정도 및 가족관계 등을 포함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는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친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Kim[8]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각각 .91였다.

2.3.2 배우자지지(Spouse Support)

배우자의 지지는 Nam[18]이 개발한 도구로 배우자에게 받고 싶은 정신적, 육체적 지지로 실제적인 도움 및 보살핌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8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3 성적 자율성(Sexual Autonomy)

Kim & Kang[19]이 개발한 성적 자율성 도구로, 총 6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2.3.4 임파워먼트(Empowerment)

임파워먼트 척도는 Rogers[20]가 개발하고, 임정기(1999)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낙관적 시각 및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포함하는 긍정적 자기이미지, 실질적인 힘, 사회 정치적 의식 등으로 구성된 총 28문항, 5점 척도이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3이었다.

2.4 자료수집 절차

M 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 후 대상자 모

집 및 자료수집 절차를 시행하였다. 대상자 모집 및 선정 과정 대상자는 M군과 M시, D시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병원 등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 후 허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8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및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요 종속변수인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의 차이는 ANOVA와 사후검정은 Bonferroni, 종속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51±5.6세이고, 최소연령 18세부터 최고연령 54세이었다. 결혼기간은 평균 76.42개월로 최소 4개월부터 최고 180개월 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67.2%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41.2%, 확대가족이 58.8%이었다. 종교는 불교가 54.6%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9.2%, 개신교 1.7% 순 이었다. 경제정도는 상, 중, 하 각각 4.2%, 59.7%, 36.1% 이었다(Table 1).

3.2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

대상자의 부부친밀감은 문항 평균 3.17±0.69, 배우자지지 3.45±0.94, 성적자율성 3.70±0.83, 임파워먼트는 3.41±0.57이었고, 총합의 평균은 각각 24.51±5.29, 64.40±15.32, 20.07±5.24, 91.88±16.78점 이었다(Table 2).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주요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기간에 따라 친밀감($p=.049$), 배우자지지($p=.010$)에 차이를 보였고,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성적자율성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p=.011$) 전문대졸, 고졸, 대학고졸 순이었다. 경제정도에 따라서는 임파워먼트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p<.000$) 순서는 상, 중, 하 순이었다(Table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9)

Characteristics / Categories		n (%)	Mean±SD
Age(year)			30.51±5.6
Marital period (months)			76.42±40.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80(67.2)	
	Associated degree	17(14.4)	
	Bachelor degree	5(4.3)	
	Graduated school	0(0)	
Religion	Buddhism	65(54.6)	
	Protestantism	2(1.7)	
	Catholicism	11(9.2)	
	None	41(34.5)	
Family type	Nuclear	49(41.2)	
	Extended	70(58.8)	
Job	Employed	40(35.3)	
	Unemployed	79(64.7)	
Economic level	good	5(4.2)	
	fair	71(59.7)	
	poor	43(3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xual autonomy		Empowerment	
		M±SD	p	M±SD	p
Age	<20	5.00	.238	4.6	.094
	20~29	3.29±0.91		3.40±0.47	
	30~39	3.56±0.97		3.35±0.60	
	40~49	3.67±0.67		3.43±0.51	
	50≤	3.00		4.30	
Religion	Buddhism	3.53±0.80	.591	3.74±0.80	.441
	Protestantism	3.30±0.42		3.74±0.80	
	Catholic	3.31±0.76		3.74±0.80	
	None	3.21±0.95		3.74±0.80	
Economic level	Good ¹	4.38±0.80	.156	4.42±0.71	.000 >2>3
	Fair ²	3.43±0.80		3.32±0.54	
	Poor ³	3.33±0.80		3.42±0.47	
Education	High school ¹	3.45±0.77	.011	3.45±0.77	.368
	Associat ²	3.45±0.77		3.45±0.77	
	Bachelo ³	3.45±0.77		3.45±0.77	
Marital period (month)	<12	3.65±1.91	.238	4.15±1.20	.094
	12≤ ~ <36	3.51±1.08		3.45±0.62	
	36≤ ~ <60	3.14±0.91		3.31±0.63	
	60≤ ~ <120	3.47±0.97		3.45±0.57	
	≥ 120	3.70±0.76		3.42±0.44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n=119)

Categories	range	Mean±SD†	Mean±SD† †
Marital Intimacy	1 ~ 4	3.17±0.69	24.51±5.29
Spouse Support	1 ~ 5	3.45±0.94	64.40±15.32
Sexual Autonomy	1 ~ 5	3.70±0.83	20.07±5.24
Empowerment	1 ~ 5	3.41±0.57	91.88±16.78

† mean per item, † † mean of total sum

Table 3. Degree of marital intimacy,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and empowerme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rital intimacy		Spouse support	
		M±SD	p	M±SD	p
Age	<20	4.00	.316	5.00	.488
	20~29	3.15±0.77		3.73±0.75	
	30~39	3.19±0.59		3.63±0.91	
	40~49	2.47±0.47		3.43±0.35	
	50≤	3.00		3.20	
Religion	Buddhism	3.19±0.69	.489	3.73±0.84	.181
	Protestantism	3.90±0.14		4.74±0.80	
	Catholic	3.16±0.68		3.94±0.80	
	None	3.10±0.69		3.60±0.75	
Economic level	Good	3.60±0.54	.151	4.30±0.68	.064
	Fair	3.32±0.64		3.64±0.96	
	Poor	3.03±0.74		3.65±0.83	
Education	High school	3.14±0.68	.520	3.74±0.80	.588
	Associate	3.25±0.59		3.81±0.79	
	Bachelor	3.46±0.52		3.40±0.42	
Marital period (month)	<12	3.45±0.77	.316	4.60±0.57	.488
	12≤ ~ <36	3.59±0.43		4.29±0.67	
	36≤ ~ <60	2.30±0.85		3.48±0.86	
	60≤ ~ <120	3.18±0.67		3.58±0.92	
	≥ 120	3.05±0.57		3.77±0.57	

3.4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의 관계

대상자들의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간에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p<.000)고 임파워먼트는 배우자지지, 성적자율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p<.05)(Table 4).

Table 4. Relationship among marital intimacy, spouse support, sexual autonomy and empowerment

	1	2	3	4	5	6	7
Marital intimacy	1						
Spouse support	0.624**	1					
Sexual autonomy	0.255**	0.240**	1				
Empowerment	0.102	0.216*	0.204*	1			
Marital period	-0.103	-0.620	0.170	-0.008	1		
Education	0.122	-0.048*	0.041	-0.141	0.755	1	
Economic level	-0.157	-0.057	-0.132	-0.127	0.701	0.761	1

* p<0.05, ** p<0.01
1:Marital intimacy, 2:Spouse support, 3:Sexual autonomy, 4:Empowerment, 5:Marital period, 6:Education 7:Economic level

4. 논의

여성은 가정에서 아내이고, 자녀들의 주 양육자, 며느

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결혼을 통해 이주한 결혼 이민 여성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역할이다. 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여성들이 부부에서 느끼는 친밀감, 배우자지지, 성적 자율성 등을 분석하여 여성으로서의 임파워먼트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다른 관계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부부관계를 나타내 주는 지표 중 부부친밀감은 관계 안에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며 밀접함을 나타내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기준으로 평균 24.51점, 4점 만점인 척도의 평균으로 환산하면 3.17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Moon [22]의 22.80점, Park [23]의 20.4, 같은 도구가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Yoo와 Cho [21]의 연구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는 건강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비교적 젊은 연령대라는 점과 과거에 비해 결혼이민자 부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배우자 지지는 아내가 지각한 배우자의 실질적인 도움을 묻는 것으로 결혼이민 여성의 지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지지, 가족의지지 및 배우자에 의한 지지 등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배우자의 지지라고 여겨지고 있다[9]. 선행연구[21,22]에서는 연령에 따라, 혹은 종교 및 월수입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는 결혼기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1년 미만인 경우 가장 높았고, 3년 이내, 10년 이상 등이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연령과 결혼 기간이 높아짐에 따라 배우자의 지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종교나 직업의 유무에는 차이가 없고,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차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군에서 더 높은 배우자지지를 보인 것과는 약간 맥락을 달리 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부친밀도, 배우자지지 사이에는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Ahn et al.[25]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보여 부부관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성적자율성은 본 연구에서는 평균 20.07점, 문항의 평균으로는 3.45 수준으로 중 이상이나,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 4.08, Choi와 Hal[27]의 결과는 3.89로 본 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28]. 성적자율성을 교육정도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전문대졸이 가장 높았고, 고졸, 대졸 순이었는데, 적은 인원이 대졸을 제외 한다면 성적자율성은 학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성적자율성과 임파워먼트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여성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반영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성적자율성 수준은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수적인 경향과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성적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결혼이민자라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자율성을 나타내게 한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반면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한 중재 후 성적 자율성이 향상 되었는데[28] 이처럼 다양한 시도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임파워먼트의 개념은 자기존중효능감, 낙관적 시각, 공격적 자아상, 실제적인 힘과 지역사회 참여 및 자율성 등의 하위개념을 갖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총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6] 자기효능감과 성적자율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도 성적자율성과 경제정도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임파워먼트 형성 과정을 통한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의 향상은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다양한 문제 및 자신들의 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스스로 당면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를 갖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결혼이민을 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부부친밀감, 배우자지지와 성적자율성 및 임파워먼트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부부친밀감, 배우자 지지는 선행연구에 비해 상승된 결과를 보였고, 성적자율성은 좀 낮은 수준인 반면 임파워먼트는 중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부부친밀감과 배우자지지 및 성적 자율성 간에는 높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 반면 임파워먼트와는 성적자율성만이 정

의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다문화 여성 부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연구의 새로운 근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재가 개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속해져 있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0). *Dynamic statistics of population* (Marriage)
- [2] L. S. Chon & H. J. Cho. (2019). A study on enculturation type and life's satisfaction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2), 277-284.
<https://doi.org/10.15207/JKCS.2019.10.2.277>
- [3] D. H. Seol, H. K. Lee & S. N. Cho. (2008). *Survey on marriage family and strategy for their long-term support*. Seoul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4] E. Y. Jung. & J. H. Kong. (2018). Convergence study on attitude toward migrant wives, cultural knowledge and cultural nursing behavior by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5), 281-290.
- [5] T. L. Kim, J. Y. Kim, G. H. Jung & S. M. Choi. (2012). Contraceptive knowledge and practice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8(4), 290-301.
- [6] S. S. Kong. (2005). A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for coupl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1), 161-173.
- [7] W. Lu et al. (2009). Changes in quality of life among breast cancer patients three years post-diagnosis, *Breast Cancer Research Treatment*, 9(114), 357-369.
- [8] S. N. Kim. (1999). A Structural model for quality of life in women having hysterectom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1), 161-173.
- [9] Y. J. Kim. (2017).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for older women in rural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39-340.
<https://doi.org/10.15207/JKCS.2017.8.10.339>
- [10] D. Parikh. et al. (2009).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growth in breast cancer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16, 641-646.
- [11] S. Wolf. (1990). *Freedom within rea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2] S. B. Chang. (2002).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1), 106- 115.
- [13] A. Falk-Rafael. (2001). Empowerment as a process of evolving consciousness: A model of empowered car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4(1), 1-16.
- [14] L. C. Chang, L. Li & C. H. Liu. (2004). A study of the empowerment progress for cancer patients using Freire's dialogical interviewing.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2(1), 41-50.
- [15] A. Chang & Y. H. Park. (2012). Effects of an empowerment program on the adjustment of older adults to nursing home life, *Journal Korean Academic Nursing*, 42(4), 559-567.
- [16] M. S. Yoo. (2010). Effects of a multi cultural marital advocacy program based on empowerment model on self esteem, self efficacy, coping way and family stress in multicultural couples.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ity Child Health*, 14(2), 145-160.
- [17] E. Waring. (1984). The measurement of marital intimacy, *Journal of Marital Family therapy*, 10, 185-192.
- [18] K. S. Nam. (1988).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pouse support and the body image of female patients who have done mastectomy and hysterectom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19] M. J. Kim & H. S. Kang. (2003). A comparative study of consistent and inconsistent contraceptive users on partner communication, perceived contraceptive control, and sexual autonomy.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33(6), 784-791.
- [20] E. S. Rogers, J. Chamberlin, M. L. Ellison & T. Crean. (1997). A Consumer constructed Scale to Measure Empowerment Among Users of Mental Health Service, *Psychiatric Services*, 48(8), 1042-1047.
- [21] Y. S. Yoo & O. H. Cho. (2001). Spouse support,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intimacy of post-mastectomy pati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y*. 15, 148 -156.
- [22] J. H. Moon. (2016).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intimacy, spouse support, physical symptom and wellbeing with breast cancer pati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4), 1933-1946.
- [23] J. H. Park, S. Y. Bae & E. Lee. (2010). The influence of marital intimacy on mental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 breast cancer survivors, *Kore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0, 177-184.
- [24] M. Cappiello, R. S. Cunningham, M. T. Knobf & D. Erdos. (2007). Breast cancer survivors: information and support after treatment, *Clinical Nursing Research*, 16, 278-293.
- [25] O. H. Ahn, Y. H. Kim, M. S. Jeon, M. S. Youn, & Y. Y. Hwang. (2010). Relationships among spousal support,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6)(B), 3137-3151.
- [26] K. W. Kim, K. H. Kang & G. H. Jeong. (2012). Self-efficacy and sexual autonomy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51-59.
- [27] M. S. Choi & N. S. Ha. (2004).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4), 318-330.
- [28] J. H. Kim & N. C. Kim. (2017). Effects of birth control empowerment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in South Korea,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3(1), 1-10.
<https://doi.org/10.4069/kjwhn.2017.23.1.1>

문 지 현(Moon, Ji Hyun)

[정회원]



- 1990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1997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학, 여성건강
- E-Mail : moonjh86@mokpo.ar.kr